

2005년도 여성계 신년인사회

- 인사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잘 봐 주십시오. 지난해 마술공연을 즐겁게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같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보다 좀 더 진하게 느꼈습니다.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을 그 무엇을 날려준 것 같은 복 공연이었고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 공연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각계에서 여성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 각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여성계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고해보면 지난해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이 비교적 원만하게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올해에도 작년보다 많은 성취나 발전 있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성을 생각할 때 여성운동을 얘기하면 웃는 기분으로 답변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보다 더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봉투를 통째로 맡아두는 권력을 어느 나라 여성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시 못 하지만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여성권력, 사회의사 결정과정에서 여성권력이 취약합니다. 실제로 큰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도 삶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때는 잘난 여성명망가들의 운동이 잘난 여성들만의 운동이 아닙니까. 실제로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며 불만을 얘기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치, 저 위치에 있는 운동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전체적으로 하나로 향상시켰습니다. 지도자 위치에도 여성들이 크게 진출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서로서로의 모든 여성의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여성운동 내에 이 운동, 저 운동이 따로 없구나 하고 비로소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더 할일이 많으나, 대통령 입이 바로 벼는 아닙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권익이 조금씩 향상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모든 일에 여야가 갈라져 협력해도 될 만한 일도 협력이 잘 안되는데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은 여야가 일치단결해 잘 합니다. 그 점에서 놀랍고 여성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여성권익문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여성들을 믿고, 역량을 믿고 맡겨드릴 일도 있습니다. 보육의 문제가 여성문제 해결에 불가결하지만 여성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 필연적입니까. 다른 부처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떠맡아도 될 것 같아서 보육을 여성부에 맡기게 되었는데 일거리고 짐이고, 할일이 새로 생긴 것이지만 축하드립니다. 보육문제를 여성들에게 맡겨두면 든든합니다.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은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중 선진국과 다른 점은 세입은 선진국과 비슷하고 조세부담률도 비슷한데, 사회보장 비용부담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지만 비슷합니다. 복지예산은 사업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금을 걷어 재정지출하고 난 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세후지니계수가 낮다고 평가하지만 기여정도가 낮다고 평가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사업예산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투자는 정부예산 아니라도 민자를 동원해서 하고 민자투자도 할 수 있고, 사용

료라든지 사회적 부담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예산을 쓸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쓰고 해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은 별개입니다. 가정이 손상되고 해체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10-20년 뒤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 복지 비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복구, 가정이 복구되지 않은 곳은 유사한 환경으로 재건시켜 가정이라는 기초적이라는 공동체로 사회를 떠받쳐 나가야 미래 생활이 안정되지 않느냐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8년 가족, 가정의 의무, 가정의 가치를 살려 나가려는 업무를 여성부에 맡기려 했는데, 의논이 맞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대체로 합의가 이뤄져 2005년 초에는 그 중요한 일까지 여성부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유 업무인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이 없도록 여성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력과 재정의 뒷받침을 위한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부하고 문화부사이에서 업무 관할과 관련해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문화부는 산업분야에 문화산업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적 수요팽창과 공급이 팽창해가기 때문에 지금 조직으로도 벅잡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보육 산업과 가정 사업에 복지부에서는 서열상 꼴지에 가서 붙습니다. 여성부는 아무리 꼴찌라 해도 1, 2, 3 중 안에 들어가기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정부안에서 여성과위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 여성장관이 많았습니다. 2005년에는 첫 출발할 때만큼 회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부안에서 여성의 과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성의 힘이 절반 여성부의 사업은 모두 3번순위안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큰 발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